

성장률 7%, 인구 1억… ‘기회의 땅’ 잡아라

베트남에 뿌리내린 ‘식품한류’

식품업계가 베트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지 법인을 세우거나 생산 공장을 세워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아울러 현지 업체와 협업을 통해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경제성장률이 평균 7%에 달한다. 인구는 1억으로 주요 소비계층인 2030 세대의 비중이 크다. 꾸준하게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젊은 세대의 소비 규모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식품업체들이 베트남 시장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푸드는 베트남 프엉 린사(社)와 함께 위드맘 분유 2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의 특징은 한국 제품을 그대로 베트남에 선보이는 것이다. 한국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강조해 베트남에서 베트남 분유시장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청정지역인 강원도에서 생산한 제품임을 강조해 신뢰도를 더 높일 예정이다. 롯데푸드는 2014년 ‘그랑노블’ 분유를 수출하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2017년 ‘무항생제 위드맘’, ‘키드파워 A플러스’를 선보였으며, 올해 라인업을 확대했다. 롯데푸드 분유는 베트남 진출 후 매년 50% 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뚜기는 2007년부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해 케찹과 마요네즈 등 소스류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라면 공장을 세우고 현지 공략에 나섰다. 오뚜기는 현지 생산을 통해 진라면의 가격을 기준 수입 가격 900원에서 500원대로 낮추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췄다.

2004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제품을 수출한 빙그레는 최근 베트남 현지 영



롯데푸드 위드맘 분유 2종 베트남 론칭쇼. /롯데푸드

오뚜기 현지법인서 소스류 판매
하노이에 ‘라면공장’… 가격 ↓

빙그레 현지법인, 3년매출 급증
작년 봉어싸만코 670개 ‘불티’

롯데푸드 위드맘 분유 2종 출시
프리미엄 분유시장 브랜드 선점

업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현지 법인을 세웠다. 빙그레는 최근 3년간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봉어싸만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만 약 670만개가 팔려나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해 봉어싸만코의 해외수출 총액 60억 원의 42%에 달하는 숫자다. 해외에서 팔린 봉어싸만코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베트남 사람들이 사 먹은 셈이다.

주류업계도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6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 아래 소주 수출이 크게 증가하자, 하노이시에 한국식당 프랜차이즈 ‘진로바베큐’(Jinro BBQ) 1호점을 여는 등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매장을 더 늘릴 계획이다.

롯데주류의 ‘처음처럼’도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처음처럼은 베트남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28%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300만병의 판

매고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프랜차이즈업계도 베트남 진출에 집중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 치킨은 최근 베트남 호치민 2호점을 개점했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1호점을 오픈 후 1년도 안 돼 두 번째 매장을 연 것이다. 모델로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채택하고 2층 매장에 박 감독의 포토존과 사인 유니폼 등을 전시한 것도 주효했다.

돈치킨은 해외 51개 가맹점 중 베트남에서만 31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해외총 매출에서 베트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이에 돈치킨은 2025년까지 매장을 200개까지 늘리기 위해 베트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가 베트남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베트남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베트남은 대표적인 고성장 국가로 경제성장률은 2017년 6.8%, 2018년 7.1%를 기록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6.5%이 예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은 대표적인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 인구는 1억명으로 2030세대 젊은 층의 비중이 큰 국가다”며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최근에는 현지화 전략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빙그레 봉어싸만코 초코. /빙그레

고소득 사업자 5년간 소득 5.6조 즐겨

고소득 사업자가 숨긴 소득이 지난 5년간 5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조원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한 셈이다.

8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기고 신고했다.

지난 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2703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억4000만원을 숨긴 것이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88명, 929억원(1인당 평균 10억6000만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숙박업 등) 83명, 438억원

(1인당 12억원) ▲기타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서비스업) 710명, 1조781억원(1인당 15억2000만원)을 숨겼다.

신고소득 대비 은닉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2.3배에 달했다. 기타업종은 1조781억원으로 1.2배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의 1조8743억원 신고, 817억원 은닉 ▲현금수입업종 575명의 3675억원 신고, 5409억원 은닉 등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1억6000만원 ▲2015년 12억2000만원 ▲2016년 10억1000만원 ▲2017년 12억7000만원 ▲2018년 13억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율인 징수율은 2014년 77.2%에서 지난해 60.1%로 17.1%포인트 감소했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같은 기간 81.3%에서 26.5%까지 폭락했다.

심 의원은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국세청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대성 기자

작년 881명 소득 1조 신고, 1.3조 은닉
전문직 929억, 현금수입업자 438억 등

내년 선박연료 ‘황 함량 규제’ 4분기 정제마진 상승 기대감

정유업계, 3분기 이익도 개선될 듯
3개월간 등경유 가격 상승세 지속

는 고유황유(HSFO)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되는 대신, 선박연료유에 대한 모든 수요가 저유황유로 쏠릴 것이라는 말이다.

국내 정유 시장은 황 함량 규제 계획에 따른 효과가 점차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업계는 등경유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3분기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마진이 올해 2분기 5.1달러에서 3분기에는 7.5달러로 증가해 정유부문 실적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각 정유사마다 다르지만 정제마진은 통상 4~5달러를 손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량 상한선을 대폭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이를 앞두고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IMO 2020’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의 효과가 기시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등경유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등경유’의 오름세에 힘입어 3분기 정유업체의 이익도 큰 폭 개선이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세계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내 황 함유량을 최대 3.5%에서 0.5%로 줄이는 규제를 실시한다. 주로 선박에서 많이 나오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인 황산화물(SOx)의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는 곧 선박들이 앞으로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



여수에 있는 정유·화학 산업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재건축 분양가 4년만에 50% 껑충

동대문구, 1년새 1130만원 71%↑
강남 4년새 22%, 노원구 41% 증가

서울 정비사업장 평균 분양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수준이 실제 4년 전보다 50% 이상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30% 가까이 급등했다. 최근 분양가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동대문구였다.

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올해 3.3m²당 분양가는 평균은 3153만원이다. 2015년 2056만원과 비교해 4년 만에 1097만원이나 올랐다.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15년 2056만원 ▲2016년 2261만원 ▲2017년 2,009만원 ▲2018년 2,459만원 ▲2019년 3,153만원이다.

직전 연도 대비 증감률은 ▲2016년 9.95% ▲2017년 -11.14% ▲2018년 22.4% ▲2019년 28.23%다. 최근 4년 중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커졌다.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서울 각 구에 해마다 재건축 분양가 결정 사례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일

괄 비교가 어렵지만, 동대문의 경우 2017년 1598만원에서 지난해 2728만원으로 1년 사이 무려 1130만원이나 급등했다. 71%나 증가한 셈이다.

다른 지역에선 강남구의 분양가가 2015년 3904만원에서 4년 뒤인 올해 4751만원으로 22% 올랐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1346만원에서 1898만원으로 41% 증가했고, 성북구는 1490만원에서 2372만원으로 59% 상승했다.

분양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HUG의 분양가가 심사 기준이 고분양가를 관리하기에 너무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